

100인의 예술 5·18 성지서 민주의 꽃으로 피다



지난해 8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오월길을 여는 100인의 5·18릴레이 아트' 퍼포먼스. <광주일보 자료사진>



15일 오후 8시 15분~새벽 5시18분 옛 도청 분수대에서 '81518'

한희원·박재동·나희덕...전국 예술인 100여명 참여

먹거리 마당·음악 공연도...작업과정 영상기록해 전시

지난해 8월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는 예술인들의 작업실이자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로 변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광주를 찾은 예술인들의 그림, 퍼포먼스 작가들의 즉흥 무대, 시민들의 웃음이 아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퍼포먼스 행사 중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민주의 열기로 가득했던 80~90년대 광주의 모습을 연출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광복 70주년과 민주주의 씨앗을 뿌린 5·18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전국의 예술인들이 다시 한번 광주에서 모여 문화 난장을 펼친다. 5·18기념재단과 전국 예술인 100명은

15일 오후 8시15분부터 다음날인 16일 새벽 5시18분까지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광장에서 '민주의 꽃-81518'을 주제로 100인의 릴레이아트 행사를 연다.

예술인들의 그림, 공연, 먹거리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는 8·15광복절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 기획됐다. '8·15'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5·18'로 읽힌다는 점에서 행사명을 '81518'로 정했다. 작가지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홍씨가 프로그래머를 맡았다. 참여 미술인들은 한희원·송필용·김해성·신양호·홍성담·주홍·임의진·고근호·류재용·정재형·강다희·최순임·박유자 등이다.

또 시사만화가 박재동, '풀하우스' 원수연을 비롯

해 황중환·이재훈·전세훈·공성술·김진·김기혜·이해경·장우혁·조성계·하비·박태성 등 시사만화의 대부분부터 인기 웹툰 작가까지 전국의 유명 만화가들도 함께한다.

나희덕 시인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도 걸개에 붓으로 시 등을 써내려갈 예정이다.

참여 작가들은 민주평화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꽃을 연출하게 된다. 이들은 각자의 작품 속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꽃, 사건들을 그리게 된다. 분수대를 둘러싼 작가 100명의 작품이 한 송이의 거대한 '민주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DJ 박태진은 존 레논과 밥 말리 등 '자유' 메시지를 담은 가수들의 음악을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들려줄 계획이다.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주 시민들이 막걸리, 삶은 달걀, 주먹밥, 김치, 수박 등으로 잔치상을 차리고, 오키나와, 성악, 색소폰과 전자 바이올린이 어우러진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작업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돼 향후 전시된다. 문의 010-6791-805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풍암호수공원 '국민대축제'



아이유

현대차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

15일 오후 6시 김건모 등 출연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 총출동~DJ 불꽃쇼도'

현대자동차그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풍암호수공원에서 '광복 70년 국민화합대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공연은 사전행사로 6시에 지역 예술단체의 축하공연이 예정됐으며 7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된다.

본행사 1부는 애국가 제창 및 뮤지컬 '영웅' 가운데 '그날을 기억하며' 부분 공연이 진행된다. 2부는 유명 가수 콘서트로 기획됐다.

콘서트엔 김창완밴드와 김건모, 아이유, 이정, 장기하와 얼굴들, 씨스타, 솔탄, 오브 더 디스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3부는 풍암호수공원에서 멀티미디어 DJ불꽃쇼로 진행된다.

콘서트는 7000석 규모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보조경기장 주변에선 오후 2시부터 부대행사로 창조경제체험존 등이 선보인다. 관객을 위한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행사도 마련됐다. /임동률기자exian@

힙합·국악·아카펠라로 변신한 '임을 위한 행진곡'

'메이플라워 버스킹 페스티벌' 14~15일 5·18기념공원

힙합·국악·아카펠라로 변신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2015 메이플라워 버스킹 페스티벌'이 14~15일 오후 7시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1980년대 초부터 불려져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해 부르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축제 기획 전문가 장용석씨가 총감

독을 맡았다. 스페인어 'buskar'에서 유래한 '버스킹'은 '발견하다, 깨닫다'는 뜻으로 음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자는 의미로 행사를 기획했다.

12팀의 출연진은 어쿠스틱에서부터 락스타일 연주, 국악, 동요, 아카펠라, 팝재즈, 힙합 등 다양하다.

14일에는 김성범 씨와 노래개비 아이들로 구성된 '도깨비 마을'을 비롯해 '3형제 밴드', '임을 순', 'SUM RECORDS', '별리나', '바람둥', '센치한 버스'가 출연한다.

15일에는 6인조 아카펠라 그룹 '아로하'를 시작으로 팝재즈 싱어송 라이터 '이훈주', 남성 2인조 그룹 'M.UNIT', 'earFun', '조아브로'가 무대에 오른다.

오후 4시부터는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플라마켓도 열린다. 문의 062-360-05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8월 22일까지 SALE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 1899-0240 **신상품 다량 입점**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